

〈書 評〉

Charles T. Horngren

Introduction to Management Accounting (4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8, pp. xxii, 714)

玄 義 泰

現代會計는 去來의 기록·분류·요약·보고·해석과 期間損益의 계산을 證示하는 傳統의 思考를 脫피하여, 會計情報의 흐름을 중심으로 會計시스템을 구축하여 意思決定에 유용한 情報提供을 證示하는 思考로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經營管理의 여러가지 技法을 집 대성한 集合體에 불과하였던 管理會計도 1970年 이후 關聯諸科學의 영향을 받아 意思決定 문제를 중심적 테마로 하면서 行動的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本書는 Stanford University의 C.T. Horngren 教授에 의하여 著述된 管理會計(management accounting)의 入門書이다. 1965年에 처음 출판되었던 이 책은 또한 다른 著者들이 比肩할 수 있는 管理會計의 대표적인 教科書라고 생각된다. 이 책이 教科書로서 가지는 특징이라 면 무엇보다도 管理會計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하기 쉽도록 간 결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本書는 이 4版을 통하여 그 명칭이 「Accounting for Management Control: An Introduction」에서 「Introduction to Management Accounting」으로 바뀌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 지 變化를 보였다. 첫째, 讀者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管理會計 의 基礎를 더욱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러 章의 내용과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 특히 關聯原 價分析(4, 5章)과 責任會計制度(9, 10章)는 확대 개편되었으며, 原價會計시스템의 여러가지 目的의 比較에 도움이 되는 製造命令書別 原價計算(14章)은 새로이 추가되었다. 둘째, 財務會計의 基礎에 관한 네 章(前版 2~5章)이 經營計劃設定 및 統制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맨 뒷편(17~20章)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내용도 대폭 개정되었다. 셋째, 會計시스템이 人間의 行動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 보다 많은 配려를 하였다. 넷째, 非製造活動과 非營 利組織體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다.

筆者: 建國大學校 商經大學 副教授

本書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면서 그 내용이 네개의 범주로 크게 나뉘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全 20章 Appendixes A,B,C로 구성되어 있다.

第1部 意思決定의 焦點(focus on decision making)

第1章 眺望

第2章 原價—操業度 關係(introduction to cost-volume relationships)

第3章 製造原價(introduction to manufacturing costs)

第4章 關聯原價와 特殊意思決定(relevant costs and special decisions—part one)

第5章 關聯原價와 特殊意思決定(part two)

第2部 計劃設定과 統制를 위한 會計(accounting for planning and control)

第6章 綜合豫算 : 전반적 計劃(the master budget: the overall plan)

第7章 變動豫算과 標準原價制度(flexible budgets and standards for control)

第8章 原價行態(variations of cost behavior patterns)

第9章 動機賦與와 責任會計(motivation and responsibility accounting)

第10章 責任會計와 原價配賦(responsibility accounting and cost allocation)

第11章 利益中心點과 對替價格決定(profit centers and transfer pricing)

第3部 特殊研究(selected topics for further study)

第12章 資本豫算(capital budgeting)

第13章 所得稅가 經營計劃設定에 미치는 影響(impact of income taxes on management planning)

第14章 製品原價計算과 製造間接費賦課(job and process systems and overhead application)

第15章 製造間接費 賦課 : 直接 및 全部原價計算(overhead application: direct and absorption costing)

第16章 計量的 技法이 管理會計에 미치는 影響(influences of quantitative techniques on management accounting)

第4部 經營者를 위한 財務會計의 基礎(basic financial accounting for managers)

第17章 會計의 基礎 : 概念, 技法 및 公準(basic accounting: concepts, techniques and conventions)

第18章 會社의 年次報告書(understanding corporate annual reports—part one)

第19章 會社의 年次報告書(part two)

第20章 純利益 測定上の 諸問題(difficulties in measuring net income)

Appendixes A 推薦圖書

B 複利利子の 원리와 現價表의 이용

C 用語解説

이상과 같은 내용을 概略的으로 분석해보면, 第1部는 意思決定에 초점을 둔 기초적인 緒論에 해당하며, 第2部에서는 會計의 注意喚起(attention-directing) 기능을 강조하였다. 第3部에서는 管理會計와 관련되는 특수한 研究分野의 일부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資本豫算, 製品原價計算, 計量的 技法을 중요한 topic으로 다루었으며, 第4部에서는 會計에 대한 기초지식이 不充分한 讀者들을 위하여 財務會計의 기초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附錄에 실려있는 主要用語의 상세한 해설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本書의 내용에서 몇가지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關聯原價分析(relevant cost analysis)과 資本豫算에 있어서의 現金循環割引法(discounted cash-flow approach)을 공식적으로 統合시키지 않음으로써 讀者들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많다. 더우기 資本豫算을 다루는 두 章이 關聯原價分析의 바로 뒤에 배열되지도 않았다. 둘째, 綜合科學的 研究方法(interdisciplinary approach)으로 接近한다고 하였지만 대체로 財務, 마케팅과 같은 여러 分科學과 관련되는 管理會計 담당자의 다양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또한 讀者들이 자주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서 管理會計담당자는 資料提供者라기 보다 意思決定者라고 하는 論理도 적절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셋째, 會計시스템과 會計方法의 선택에 기본적인 思考를 이루고 있는 費用-效益 哲學(cost-benefit philosophy)의 不確實性의 문제, 短期 대 長期, 管理可能性과 會計責任性, CVP 分析 및 關聯原價의 개념과 같은 다른 주제의 관점에서 全章을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行動科學의 적용범위가 다른 책에 비하여 훨씬 더 넓고 또 체계화 되어있다. 그러나 會計와 行動科學의 共通領域을 다루었어야 하며, 새로운 會計시스템을 구성하는 行動的 요소와 會計情報의 전달에 따른 諸問題가 보다 강조되었어야 한다. 또한 機能的 固定觀念(functional fixation)과 情報過重(information overload)의 假設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本書는 大學이나 大學院에서 會計學 또는 經營學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管理會計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상세히 정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管理會計의 行動的 측면과 非營利組織體에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은 앞으로 讀者들의 熱情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